

논문요지

제 목 : 국제화에 따른 동북아시아의 지역 특성화

사업단위 : 전남대학교 사대 지리교육과

성 명 : 전 경숙

논문요지 :

1. 동북아시아는 세계 4대 경제권 중 중국, 일본의 2대 경제권이 포함되는 중요한 지역이다. 동북아시아의 2대 경제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의 경우, 세계화와 더불어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황해 중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지역으로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서남부의 光州가 부각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북동부의 延吉 또한 주목해야 할 지역이다.

2. 동북아시아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同質性을 지닌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지역의 동질성은 국제경쟁 속에서 본 지역의 특성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공동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의 상호이해가 우선 되어야 하므로, 지역간의 자매결연 같은 행정적인 측면 외에, 문화센터의 교류, 가정민박, 학생의 교류, 동·직종간의 협동연구 등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가 요망된다. 특히 정보화시대인 만큼 인적교류 외에 기술, 정보의 교류가 요망된다. 특히 정보화시대인 만큼 인적 교류외에 기술, 정보의 교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3. 동북아시아지역의 동질성은 본 지역의 특성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동북아시아 각 지역의 이질성은 각각의 특성으로서 발전시켜야 한다. 동북아시아지역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리적 연구가 요구된다.

4. 지리적 연구를 위한 분석지표로서는 자연적, 인문적 요소를 들 수 있다. 인문적 요소로서는 기반 속성으로서의 인구, 가족, 소득, 가옥, 편의시설을 들 수 있다. 생활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루에서 일생에 이르는 행로의 분석을 통한 행태의 공간범위의 이해 외에 언어, 최근의 급변하는 상황과 가치관 등을 구명한다.

5.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지역의 발전단계, 잠재력에 따라 시장의 논리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요소를 추출하여 육성, 발전시켜 세계화에 대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